

Style 1 조선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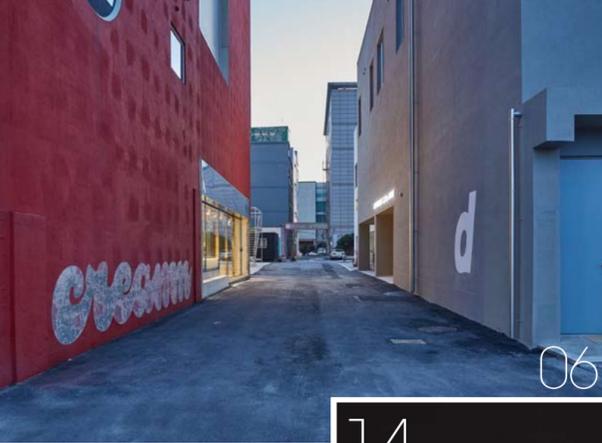
AUGUST 2020
vol.208

© 2020 T&CO.



He Loves Me, He Loves Me Not
사랑한다면, 티파니 다이아몬드

TIFFANY & Co.



06



28



14



08

Style 조선일보
AUGUST 2020
VOL.208

TIFFANY & Co.

미나말하고 건축학적인 디자인이 특징인 티파니 트루 링은 플라타네에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그리고 18K 옐로 골드 에 펜시 쿠션 모디피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중 선택 가능하다. 섀터 스톤을 손가락 가까이 오도록 설계한 강렬하고 기하학적인 세팅 덕에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신 광채를 발한다. 문의 02-6250-8620

06 TOWARDS LIFESTYLE EXPERIENCES 온 세상이 마스크의 물결로 넘실대는 듯한 아주 낯선, 아니 어느새 익숙해진 모습에 문득 선풍하기도 한 코로나 시대의 길거리 풍경. 그래도 작은 위안이 있다면, 느려진 삶의 속도에 맞춰 가끔 동네 산책길을 한가로이 가볼 때 느껴지는 맑은 공기를 쬐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꽤 많은 이들이 주거자와 가까운 동선 내에서 일상을 보내면서 나의 집, 우리 동네를 한층 소중하고 애뜻하게 대하게 된 점도 새겨볼 만하다. 세계 곳곳의 도시들이 부러웠던 청초적 지역 재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집중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바로 지금일지도 모르겠다. 마침 우리네 아름다운 화산섬 제주에서는 원도심과 가까운 탐동의 골목 상권에 다시 활력이 감돌고 있어 눈길이다. 6년 전쯤 이곳에 미술관을 열면서 변화를 주도했던 아리리오의 또 다른 당찬 행보 덕분이다. 현대미술과 지역의 개성이 묻어나는 디자인을 품은 아트 호텔이 들어선 아리리오 타운에 가보자.

- 08 SELECTION for her** 신부를 더욱 눈부시게 해줄 브라이덜 셀렉션.
- 10 SELECTION for him** 클래식한 취향을 지닌 신랑을 위한 웨딩 에센셜.
- 11 GOLD RUSH** 다채로운 빛과 색의 골드로 물든 아틀리에의 풍경.
- 12 THE BANGLES** 어느 옷이나 잘 어울려 누구나 매일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얇은 밴글 브레이슬릿 하나.
- 13 TRUE LOVE** 다양한 문화와 언어, 각기 다른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지닌 세상 모든 커플에게 존재하는 단 하나의 공통점은 사랑. 티파니는 모던하고 감각적인 에티튜드로 사랑을 표현한다.
- 14 BRIDE IN BLOOM** 부드러운 감촉과 황홀한 빛을 반짝이는 이 순간, 여름날 꽃처럼 피어난 신부의 초상.
- 24 GET YOUR LOGO** 잘 고른 티셔츠 한 장으로 완성하는 쿨 스타일링을 위한 맨즈 로고 티셔츠 9.
- 25 FOR THE JOURNEY** 지도만 봐도 설레는,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여성 여행용 시계 7.
- 26 SCENT CHECK** 코끝을 자극하는 대담하고 시원한 남자의 향기.
- 27 PERFECT HYDRATION** 몸이 지칠 때 마실 물부터 찾는 것처럼, 피부가 지칠 때 가장 먼저 공급해줘야 하는 것도 수분이다. 여름철 지친 피부 케어를 위해 탄생한 자방시 하이dra 리스스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은 피부 속 수분 공급에 총력을 다한다.
- 28 FINE LIVING** 미감을 충족시키는 인테리어 씬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에 새롭게 문을 열거나 달라진 모습으로 이끈 리빙 스톱 6.
- 30 EDITOR'S PICK** 8월, 자치고 약해진 피부 회복에 전념해야 할 시간.

DAMIANI

HANDMADE IN ITALY SINCE 1924



Style 조선일보

Issue.208 August 2020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장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l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리서치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BRIDAL COLLECTION
DAMIANI.COM
 02 3213 2141

THE HIGHLIGHT

대담한 디자인에 진귀한 소재를 다룬, 그래서 긴장감마저 감도는 하이 주얼 워치. **피아제 악셀세실 크리에이티브 워치** 010001 해변의 독특한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스타일 워치. 컬러 컬렉션에서 선보이는 시계. 화이트 골드에 총 1천9백99개 다이아몬드를 풀 퍼프 세팅하고 블루 그린 울린케 에펠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줬다. 가격 미정. 문의 02-3479-1802 **카르티에 베누이 데브로드 워치** 건축적인 실루엣에 수많은 밤을 흘려놓은 듯 심해지고 진귀한 액자를 닮았다. 화이트 골드에 블랙 스피넬과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케이스로 풍성한 볼륨감과 유려한 라인을 표현했는데, 고유번호를 부여한 5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다. 가격 미정. 문의 1666-7277 **포드 그래피 최승혁 에디터 장미윤**



쿠튀르의 감성, 컬러로 태어나다

자방시 프리즘 리브르의 4가지 루스 파우더 조합은 이티스틱 디렉터 니콜라스 드젠이 만들었다. "얼굴 피부는 동일한 컬러 톤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3~4가지 컬러를 섞어 피부 톤을 보완하고 자연스러운 광채를 주어야 합니다" 톤 보정 효과를 갖춘 2가지 컬러와 광채 피부로 만들어주는 2가지 컬러를 조합했다. 총 6가지 세트로 출시한다. 3gX4 8만2천원대, 루스 파우더 브러시 5만7천원대. 문의 080-801-9500

MIGHTY MINI

작은 사이즈에 반비례하는 강렬한 존재감의 주얼 장식 미니백. **로저 비비에 미니 참비비에 백 인 블랙** 크리스탈 세팅 로고 침 장식으로 재판을 준 원형의 원 핸들 백백 백 21X10X10cm 2만4920원. 문의 02-6905-3370 **샤넬 플립백** 벨, 자수장 등을 다룬 골드 메탈 플레이트 장갑 장식의 문보이는 미니 사이즈 숄더백 19X13X6cm 7만5520원. 문의 080-200-2700. chanel.com 포토그래퍼 **최승혁 에디터 이혜미**



SPLENDID WORLD



HOME CAFÉ

회전 추출로 풍성한 크레마와 깊은 보디감의 커피를 맛볼 수 있는 네스프레소 버츄오 플러스. 캡슐 고유의 바코드를 자동으로 인식해 미치 전문 버리스타가 뽑은 듯 완벽한 커피 맛을 구현한다. 깔끔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없다. 29만9천원. 문의 02-6295-7365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별이 빛나는 밤

반짝이는 별로 가득 찬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에벤추린 글라스 다이얼이 매력적인 자체를 뽐내는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워치. 특유의 클러와 모노 랭 브레이슬릿 디자인 그대로 고유성은 유지한 채 섬세한 변형을 주었다.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700/8701로 구동하며, 지름 29mm 푸른빛 다이얼 위로 다이아몬드 아워 마커가 수놓인 다이얼은 스테인리스 스틸, 18K 세드나 골드, 옐로 골드 또는 스틸 & 골드 콤비 브레이슬릿, 4가지 스타일의 브레이슬릿과도 잘 어울린다. 1천만원대 문의 02-511-5795



IT COLORS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샤머 내일 폴라시.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올레안카 버나 뷰티 인텐스 내일 라미 #610 피아제** 선행한 오렌지 컬러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한다. 10ml 3만4천원. 문의 080-564-7700 **자방시 르 베르니 #05 무사야 이리자스티** 한 번의 터치만으로 완벽한 발색력을 구현하는 제품. V자형 브러시로 초보자도 뽕뽕 얹어 고르게 펴 바를 수 있다. 10ml 3만원대. 문의 080-801-9500 **샤넬 르 베르니 #624 볼루 트롤루루** 깊고 푸른 바다를 담은 컬러가 매력적인 제품. 바이오 세라미드와 세라마이드 포몰라가 손톱을 보호한다. 13ml 3만5천원. 문의 080-332-2700. chanel.com 포토그래퍼 **최승혁 에디터 이주이**

GARDEN PARTY

주세페 자노티에서 선보인 한여름의 정원 파티 컬렉션. 만개한 장미와 풍성한 들꽃에서 영감을 얻은 화려하고 사랑스러운 디테일로 무장했다. 골드 오버사이즈 아를리케 장식이 눈길을 끄는 릴리움 샌들 1백38만원. 문의 02-543-1937



DRINK

프리미엄 진 브랜드 헨드릭스(Hendrick's)가 무더운 여름철의 갈증을 달래줄 한정판 제품을 선보였다. 보랏빛 패키지로 디자인이 눈길을 사로잡는 '헨드릭스 미드서머 솔스티스(Midsummer Solstice)',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夏至)'를 뜻하는 '샤머 솔스티스'라는 제품명에서 알 수 있듯 이 한정판 프리미엄 진은 완벽한 여름날에 탄생했다. 헨드릭스 진 마스터 디스틸러 레슬리 그레이시(Lesley Gracie)가 만개한 꽃향기에서 영감을 받아 해당 제품을 개발했다고. 헨드릭스 고유의 싱그러움 장미와 오이의 풍미는 그대로 살아 있지만 주니퍼베리 향 너머로 짙은 꽃 향이 느껴지는 게 특징이며, 미드서머 솔스티스 50ml, 스카클링 와인 50ml, 톱니워터 150ml 비율로 섞어 칵테일을 만들어도 좋다. 20여 년에 걸쳐 모이온 각종 진귀한 허브 원액을 보관한 캐비닛 오브 큐리어사티(Cabinet of Curiosities)라는 별칭이 있는 그레이시의 실험실에서 빛어낸 결실인 이번 미드서머 솔스티스 한정판(7만3천원, 국내 4천 병을 필두로 헨드릭스는 앞으로 흥미로운 시리즈를 내놓을 예정이다).

행운의 열쇠

몸에 직접 착용하는 주얼리는 여타 액세서리와 달리 특별한 추억이나 개인적 신념, 의미를 담아 소장해 지닐 수 있는 물건이다. 삶이 주는 지혜와 기쁨을 기념하는 티파니 키 컬렉션도 마찬가지.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 혹은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여는 열쇠 등 공상적인 미래를 상징해 출시 이래 꾸준한 사랑을 얻고 있다. 다채로운 소재와 모티프, 주얼 스톤을 적용한 컬렉션에서 특히 티파니의 최상급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키 펜던트는 소장 가치 높은 모델.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플래타넘 보다 위 영롱한 옐로 다이아몬드로 방점을 찍은 티파니 스타 키 펜던트는 약 5.7cm 크기로, 별도의 체인을 더해 네크리스로 연출하면 완벽하다. 가격 미정. 문의 02-6350-8620





Brands & Artketing series 4 아라리오(Arario)

towards lifestyle experiences

은 세상이 마스크의 물결로 넘실대는 듯한 아주 낯선, 아니 어느새 익숙해진 모습에 문득 섬뜩하기도 한 '코로나 시대'의 길거리 풍경. 그래도 작은 위안이 있다면, 느려진 삶의 속도에 맞춰 가끔 동네 산책길을 한가로이 거닐 때 느껴지는 맑은 공기를 쬐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꽤 많은 이들이 주거지와 가까운 동선 내에서 일상을 보내면서 '나의 집', '우리 동네'를 한층 소중하고 애뜻하게 대하게 된 점도 새겨볼 만하다. 세계 곳곳의 도시들이 부르짖어온 창조적 지역 재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집중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바로 지금일지도 모르겠다. 마침 우리에게 아름다운 화산섬 제주에서는 원도심과 가까운 탐동의 골목 상권에 다시 활력이 감돌고 있어 눈길이 간다. 6년 전쯤 이곳에 미술관을 열면서 변화를 주도했던 아라리오의 또 다른 단상 행보 덕분에이다. 현대미술과 지역의 개성이 묻어나는 디자인을 품은 '아트 호텔'이 들어선 아라리오 타운에 가봤다.

제주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소요되는 탐동의 한 골목. 빨강 바탕의 벽에 'Creamm'이라는 글자가 적힌 건물을 마주하고 알파벳 'd'가 적힌 연회색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연신 휴대폰으로 셀카 촬영을 하고 서로 찍어주며 웃는 아가씨들이 눈에 띈다. '크림'은 아라리오뮤지엄 탐동시네마 1층에 있는 카페 이름이고, 맞은편 'd'가 적힌 빌딩은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아라리오의 복합 공간이다. 레스토랑과 상점, 숙박 시설 등을 아우른 디앤디파트먼트 제주 바이 아라리오(D & DEPARTMENT JEJU by ARARIO). 제주에서 '핫한' 카페답게 실내에도 수다 삼매경에 빠진 듯한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크림의 m자를 지나서 걸으면 한눈에 봐도 맵시 있게 새 단장한 건물이 하나 더 사이에 들어온다. 옥외에 드러나는 계단으로 이어진 콘크리트 건물을 사이좋게 차지하고 있는 매장은 렌탈 바이크 쇼퍼터블(1층)과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 백을 내세우는 글로벌 업사이클링 브랜드 프리아트(2층). 이 지점에서 아예 걸 건너편을 보면 아라리오에서 운영하는 인기 빵집인 ABC 베이커리 카페가 보인다. 이외에도 이 동네에는 수제 맥주집 맥파이, 이자키야 미친부엌 등 맛집이 은근히 모여 있다.

미술을 매개로 재생의 미학을 꿈꾸다
사실 관광 코스로 각광받는 중문, 한림 등과는 달리 제주 원도심에서 이처럼 활기를 띠는 길거리 풍경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 원도심의 북쪽에 위치한 탐동은 1990년대만 해도 해변가 지역다운 운치와 활기를 띠면서 동문시장을 비롯해 극장, 카페 등 상업 시설이 많았지만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기운을 잃어갔고, 꽤 오랫동안 낙후된 동네로 존속해왔다. 그러다 골목 상권이 변화를 맞이하게 된 건 지금으로부터 6년 전쯤이다. 사업가이자 세계적인 현대미술 컬렉터, 작가이기도 한 아라리오 김창일 회장이 그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2014년 가을, 아라리오뮤지엄 탐동시네마, 동문모텔 I, 동문모텔 II 등 미술관 단지를 세우고 근처에 음식점과 카페 등을 직접 열기도 하면서 이 동네 골목 상권에 점차 활력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2017년 출간된 <골목길 자본론>에서 저자 모종린 교수는 원도심 재생을 목적으로 미술관을 연 김창일 회장을 가리켜 '도시 기획자라고 불렀다(그는 천안에서 이미 고숙버스터미널과 현대미술 갤러리, 백화점 등을 묶는 상업 단지를 성공적으로 만든 이력도 있다). 모종린 교수는 개인이 꾸리는 사립 미술관 차원에서 복합 문화 단지를 건축해 상업 시설을 직영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사례는 드물다고 강조하면서 제주의 아라리오뮤지엄이 골목 비즈니스 활성화에 필요한 유동 인구를 창출하는 '첫 가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제주의 흥대로 부르키엔 유동 인구와 가게 밀집도가 부족하기에 아라리오 프로젝트가 완성됐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이면서, 실제로 지난 3~4년 동안 탐동 인근은 그리 왕성하다고는 할 수 없는 시기를 겪었다. 외부 변수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미술관과 몇몇 음식점만으로는 모객에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2020 여름, 아라리오의 탐동 재생 프로젝트 2막이 열리고 있다. 그동안 그저 지켜본 게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거듭했고, '지역성'이라는 키워드를 찾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트너들과 함께했다.

아라리오 X 디앤디파트먼트 in 제주
"스페인인 발바오 구겐하임이나 뉴욕 모마, 런던 테이트 같은 사례를 보면 미술관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잖아요. 하지만 탐동에서 미술관만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들었어요. 저희가 제주도를 잘 모르고 사업을 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주에서 만난 김지완 대표는 애초부터 품어온 근본적인 의도

사진: 김지완(Arario)

는 미술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아라리오뮤지엄을 계기로 문화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도시 재생을 꿈꿨다는 것. 그의 말을 들으니 절로 떠오르는 해외 갤러리가 하나 있다. 스위스 출신의 부부 갤러리스트가 영국을 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나간 하우스 앤드 워스(Hauser & Wirth). 현대미술계에서 가장 떠오른 '브랜드'로 주목받는 갤러리인데, 그 인기의 배경에는 단순히 작품만 파는 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독특한 마케팅 전략이 있다. 영국 서머셋에 위치한 하우스 앤드 워스의 더슬레이드(Durslade) 농장은 서점, 레스토랑, 호텔, 갤러리 등을 아우르는데, 연간 수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핫플'이다. 또 스코틀랜드에 파이프 암스(Pipe Arms)라는 아트 콘텐츠로 버무린 빈티지 호텔도 운영 중이다. 갤러리가 대형화 추세를 띠면서 이렇듯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하고, 유통까지 아우르는 전략이 구미 지역에서는 잘 들어맞고 있는 셈이다. 물론 단순히 자금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화적, 지리적 환경을 고려할 때 절대로 쉽게 모방할 수는 없어 보이지만 말이다. "미술은 (오래 세월이 걸리는) 하나의 '문화이자 기초 체력' 같은 거라 한 기업에서 홀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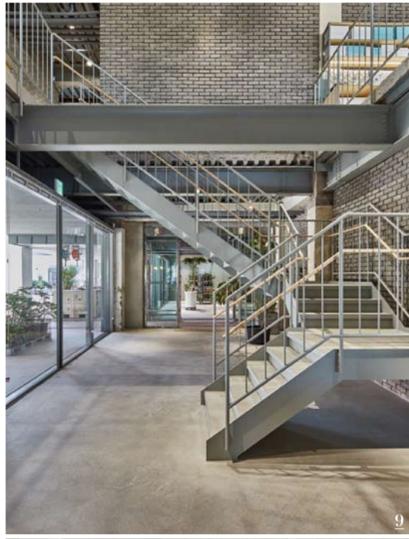
서 현실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도록 하는 게 특별한, 외지인만이 아니라 지역인들도 사랑하는 '소매(retail)' 유통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차분하게 고민하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아이디어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다 지역 커뮤니티와 호흡하는 활동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디앤디파트먼트 프로젝트(이하 '디앤디')의 서울점을 2013년부터 운영해온 밀리미터 밀리그램을 만나면서 물꼬가 트였다. "갤러리와 미술관 일 때문에 출장을 자주 다니다 디앤디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는데, 서울점을 직접 방문해보고는 영감을 얻었지요." '디앤디'는 일본의 디자이너 자 한국에서도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한 저자이기도 한 나카모 카겐메이가 '재활용과 유행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성'에 기초한 '롱 라이프(long life)' 디자인을 키워드로 시작한 프로젝트다. 이후 지역 파트너와 함께 해당 지역의 상품 브랜드

에 초점을 맞춰 음식, 출판, 여행 등을 다루는 편집매장을 일본(도쿄·오사카·교토 등 아홉 곳), 중국(항산), 서울(이태원) 등에 두고 있다. 그렇게 제주점이 탄생하게 됐는데, 유일하게 아라리오는 숙박 시설을 겸비한 공간을 꾸리게 됐다. 그것도 객실과 로비 등 공유 공간에 구애 가능한 미술품을 전시한 '갤러리 호텔'의 형태로 말이다.

'힐링' 공간에서 공생의 해법을 찾아
아라리오가 운영하는 제주 공간은 전반적으로 디앤디의 결과와 비슷하다. 본사와 제주 현지에서 공수한 '롱 라이프 디자인' 상품을 접할 수 있는 매장, 구애 가능한 재활용품이나 가구가 곳곳에 눈에 띄는 공유 공간, 제주의 제철 식재료로 만든 메뉴(예컨대 5월 가오른 기간에는 제주에서 잡친 달걀 먹는 뽕베고기)를 제시하는 d 식당 등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 펼쳐져 있다. 밝고 경쾌하지만 공간 전반적으로 배경음악이 나오지 않아 '고요함 속 집중'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아무래도 '하이라이프'는 디앤디 프로젝트 자체에서 오랫동안 품어온 바람이기도 했다는 숙박 공간일 터다. 'd 룸'이라 불리는 객실이 13개 있는데, 규모 작은 호텔이지만 꽤 인성적이다. 따스한 감성의 인테리어도 그렇지만 녹색 식물이 곳곳에 놓여 있어 '힐링'의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흔한 비닐봉지 대신 신문지를 접어 넣은 휴지통이라든지 맥주잔을 재활용해 만든 양치질용 컵이라든지, 제주 지역의 생산업자들과 협업해 생산한 스낵이라든지, 곳곳에 눈요깃거리가 많다. 먹거리를 예로 들어 보자면 '김경숙 해파리' 농장에서 만드는 육포, 제주 '흑돼지'를 표방하는 돛뎀, 우도 땅콩 등이 그렇다.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사전에 회원을 모집해 가오른 기간에 숙박 체험도 할 수 있었던 터라 '인스타그램'으로 입소문이 많이 났다. '회원제'라고는 하지만 진입 장벽(연간 회비 5만 원)이 낮은 편이다. "저희가 해나가는 활동을 지지한다는 최소한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도에서 만든 기준입니다." 아라리오의 디앤디 제주점이 앞으로 펼칠 중요한 활동은 지역 생산자들과의 연대다. "공부회라는 방식으로 품질과 철학을 지닌 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찾아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또 요리든 식재료든 디자인이든 각 분야의 장인급 전문가를 초청해 단기 체류를 하면서 노하우와 철학을 나누는 프로그램 d 뉴스도 꾸려나갈 예정이다.

"처음 오픈했을 때는 디앤디가 지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지지만, 그 뒤에는 운영하는 회사의 정체성과 지역성이 반영되면서 자율성이 자연스럽게 부여됩니다. 좋은 상품, 좋은 생산자를 찾고 같이 성장해나가는 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숨어 있는 분들이 계시 수 있잖아요." 미술이 일상에서 살아 숨 쉬는 문화 예술 도시를 만든다는 취지로 시작된 도시 재생 프로젝트까지 당찬 도전장을 던진 아라리오의 행보. 한국인이 사랑해마지않은 제주의 원도심이 대상 지역이라는 점에서, 또 글로벌 브랜드를 추구하는 현대미술 갤러리가 성장과 확장을 꾀할 수 있는 시기임을 하는 21세기형 브랜드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볼 것 같았다. **글 고성현**

1, 2 제주 탐동에 현대미술과 디자인을 품은 숙박 시설, 레스토랑, 자연성이 빛나는 물길과 약피, 풀 라이프 디자인 감성으로 선정한 기구와 생활용품 등이 한데 어우러진 디앤디파트먼트(디앤디) 제주 바이 아라리오가 들어섰다. 아라리오뮤지엄 탐동시네마 건물과 마주한 3층짜리 연회색 빌딩으로 설계는 블루 보틀, 해피(AV) 등의 프로젝트를 맡은 스키피 아키텍츠가 맡았다. 빌딩 1층에는 인기 카페 크림(Creamm)이 들어섰다. 3 디앤디 제주가 가오른 행사로 지난 5월 문을 연 데다 사전에 대안점과 업사이클링 브랜드 프리아트 등도 들어서면서 인근 골목 상권에 활기가 더해졌다. 4 아라리오는 이미 2014년 가을 아라리오뮤지엄 단지를 세우면서 미술 관련으로 활동한 구도심 재생 프로젝트에 나섰다. 아라리오 디앤디와의 협업을 진행했다. 5 2014년 가을 서울에 문을 연 아라리오뮤지엄 인스페이스. 6 아라리오가 2017년 한 해에서 진행 중인 아시아 여성 작가 25명 그룹전 <안상민 전시 모습>. 7, 9, 11 바, 레스토랑, 상점 등 디앤디 제주 공간은 음악 없이 조용하고 평화롭다. 8, 10 'd 룸'으로 불리는 객실은 식물 가게 파도스튜디오가 제공하는 녹색 식물 덕분에 생생하고 따스한 감성이 깃들었다. d 룸의 공식 오픈은 8월 7일이고, 웹사이트(jeju.arario.com)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객실을 비롯해 공유 공간을 채우는 미술품, 가구, 소품 등은 대부분 '구애' 가능하다. 12 d 뉴스의 제주형식 메뉴. 13, 14 제주살이는 김의 고스라들과 제주제면의 제주국수 등 지역 산악이나 장인의 생산품을 디앤디 제주 매장에서 접할 수 있다. 1, 7, 8, 9, 11 Photo by Nils Claus



POLO

RALPH LAUREN

BLUE



THE MEN'S FRAGRANCE

1 수심 600m 방수와 플라이 백 기능을 갖춘 포르투가저 오토 클랩 크로노그래프 1천6백50만원 IWC. 2 무드나에 92만원 브리오니. 3 솔 라벨 특사도 수트 7백70만원, 이브닝 셔츠 1백10만원, 보타이 32만원, 카바랜드 60만원, 포켓 스카어 21만원 모두 톨 포트. 4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 벨트 1백32만원 에르메스. 5 캐럿 카프 스킨 지갑 532만원 모이나. 6 타이 핀 13만원 보스 맨. 7 오마주 투 빅토르 워고 민트칼 1백38만원 몽블랑. 8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을 공급하는 보이 드 사셀 포타피인 젤 모이스처라이저 50ml 12만6천원 샤넬. 9 워치 & 주얼리 케이스 1만원대 루이 비통. 10 토피 애플의 달콤함, 짙은 바닐라와 과일 향이 어우러진 발렌타인 싱글몰트 글렌버기 12년, 700ml, 7만원대 발렌타인. 11 페이턴트 가죽 과 스무스 가죽의 조합이 멋스러운 마르소 대비 슈즈 1백만원대 생 로랑 by 인토니 바카렐로. 12 무주르 시그처 에프와일 워딩 밴드 3백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13 상징적인 연인 타님 패션을 착용한 다이아몬드 카프스 링크 1천3백96만원 브레게. 14 갠치니 장상이 문보이는 콜러치, 33x24cm, 1백50만원 살바토레 페라가모.

IWC 02-3440-5876 브리오니 02-516-9688 톨 포트 02-6905-3534 에르메스 02-542-6622 모이나 02-2254-4150 보스 맨 02-515-4088 몽블랑 1670-4810 샤넬 080-332-2700, chanel.com 루이 비통 02-3432-1854 발렌타인 02-3466-5700 생 로랑 by 인토니 바카렐로 02-6905-3924 반클리프 아펠 1669-1906 브레게 02-6905-3571 살바토레 페라가모 02-3430-7854

for him
Selection

클래식한 취향을 지닌 신랑을 위한 웨딩 에센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14

수입판매원 / (주)이노비타(주) | www.polo.com | 문의 / 02-388-8654



1 우아하고 모던한 플로럴 향의 미스 디올 블루밍 부케 오 드 퍼퓸. 100ml, 17만8천원대 **디올**. 2 깊은 누드 컬러를 담은 루주 베티르 꾸뛰르 #139 베이지 크림 4인칭원 **입생로망 뷰티**. 3 아틀리에 장식을 수놓은 힐 레이스 드레스 가격 미정 **오스카 드 라 렌타 by 소유 브라이덜**. 4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패션 인게이저먼트 링 3천만원대, 포제션 링 7백만원대 모두 **피아제**. 5 핑크 골드 렌즈 선글라스 가격 미정 **샤넬**. 6 크리스탈과 로돌을 플레이팅한 핑크 54만9천원 **아틀리에 스와로브스키**. 7 실크 트윙클 스킵프 25만원 **에르메스**. 8 동그란 다이얼에 담긴 블루 스틸 핸드와 문메이스 향이 조화로운 프라미투나 워치 1백55만원 **론진**. 9 깃털 장식이 화려한 핑크 스웨이드 샌들 가격 미정 **주세페 자노티**. 10 견고한 카프 스킨으로 완성한 가브리엘 백, 31X21cm, 6백68만5천원 **모이나**. 11 다이아몬드 헤어피스 가격 미정 **타파니**. 12 온더룩으로 즐기는 모엣 & 샹동 아이스 임페리얼 10인칭원대 **모엣 & 샹동**. 13 브로치 겸용 세팅 보행 라지 롱 펜던트 네크리스 2천만원대 **부세른**. 14 아틀리에 형태 굵이 인상적인 No.13 플라워 워치 샌들 1백52만원 **알렉산더 맥퀸**.

디올 080-342-9500 **입생로망 뷰티** 080-835-0089 **소유 브라이덜** 02-541-7077 **피아제** 02-3479-1802 **샤넬** 080-200-2700, chanel.com **아틀리에 스와로브스키** 1661-9060 **에르메스** 02-542-6622 **론진** 02-310-1597 **주세페 자노티** 02-543-1937 **모이나** 02-2254-4150 **타파니** 02-547-9488 **부세른** 02-3213-2246 **알렉산더 맥퀸** 02-6905-3472 **모엣 & 샹동** 02-2188-5100

for her Selection

신부를 더욱 눈부시게 해줄 브라이덜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샤넬의 유한성 아틀리에 아방 에티어 아방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피아제** **섹스스 맨즈** 원형과 사각형을 결합한 모던한 디자인의 화이트-옐로 골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타파니 슐람바제 식스틴 스톤** 링 연속적으로 이어진 'X' 모티브 사이에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 & 플라티넘 링 가격 미정. 문의 02-547-9488 **부세른** **과트로 크레올 화이트 에디션 후프 이어링** 화이트 세라믹과 다이아몬드 밴드의 조화가 싹뚝한 핑크-옐로 골드 후프 이어링 1천만원대. 문의 02-6905-3322 **샤넬** **하인 주얼리 코르 크루쉬 이어링** 탈착 가능한 핑크를 더해 피아싱을 하지 않고도 착용할 수 있는 클립 이어링.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보디와 클립 모티브를 인그레이빙한 옐로 골드 보디의 감각적인 조화가 돋보인다. 6백만원대. 문의 080-200-2700, chanel.com **플라워 비제루원 네크리스** 더블 로고, 나선형 모티브 등 메종을 상징하는 아이코닉한 디자인 요소를 집약한 로즈-화이트-옐로 골드 소재 펜던트 네크리스 7백만원대. 문의 02-2066-0170 **타사키 오로라 링** 깊은 비드속을 비추는 빛에서 영감을 얻은 유려한 곡선의 화이트 골드 & 사쿠라 골드™ 소재 링 6백만원대. 문의 02-3461-5558 **오메가 레이다비터 링** 동양의 시계 컬렉션에서 차용한 디자인 요소를 곳곳에 녹인 화이트 패턴 링. 레드-화이트-옐로 골드 조화를 이뤄 다채로운 매력을 발산한다. 6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에티어 **아방**

얼굴 모양의 크랙 비커스 인센스 홀더 3인칭, 시카 모양 오브제 12만8천원, 오벌 트레이 6만5천원, 그 위에 세팅된 핑크 포인트 인센스 홀더 2인칭, 모두 핸드메이드 세라믹 제품으로 **오자 크래프트 (Oja Craft)**. 문의 070-8844-5474



gold rush

다채로운 빛과 색의 골드로
물든 아틀리에의 풍경.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아틀리에 오소피



the bangles

어느 옷에나 잘 어울려 누구나 매일 쉽게 착용할 수 있는 얇은 밴글 브레이슬릿 하나.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화이트 주얼리 코르 크라쉬 오픈 밴글 칼링 모티브의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오픈 밴글 가격 미정. 문의 060-200-2700, chanel.com **부쉐른** 세팅 밴글 브레이슬릿 트루 스톤 체인 세공을 한 화이트 골드 보드에 다이아몬드를 피네 세팅한 밴글 마린을 상징하는 드롭 2개를 매치했다. 1천만원대. 문의 02-6905-3322 **프레드 샹스** 인파니 브레이슬릿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 버블과 루비 라인 케이블을 매치했다. 3천3백만원대. 문의 02-514-3721 **반클리프 아펠** 베블리 브레이슬릿 옐로 골드에 5개 라인으로 빼곡하게 베블리 골드 비즈 세공을 했다. 1천만원대. 문의 1669-1906 **피아제** 포세신 더블 밴글 브레이슬릿 30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핑크 골드 더블 밴글 브레이슬릿 1천1백20만원. 문의 02-3479-1802 **티파니** 티파니 T1 와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한지드 밴글 18K 로즈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47-9498 **다이아나 벨** 에코크 브레이슬릿 0.12캐럿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3백46만원. 문의 02-515-1924 **에디터 장라온**



true love

다양한 문화와 언어, 각기 다른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지닌 세상 모든 커플에게 존재하는 단 하나의 공통점은 사랑. 티파니는 모던하고 감각적인 애틀튜드로 사랑을 표현한다.

1837년 뉴욕에서 탄생한 티파니는 1백8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러브 스토리를 장식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변치 않는 사랑과 언약의 대명사이자 다이아몬드의 명가라 불리는 티파니가 선보여온 컬렉션은 동시대 감성을 담아 현대적이고 사랑스러운 디자인이 특징. 그런 점에서 티파니 세팅 링에 이어 사랑받고 있는 티파니 트루(Tiffany True)에 더욱더 시선이 간다. 무엇보다도 광채와 명암을 극대화하는 다이아몬드 커팅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기하학적이고 건축적인 전체 디자인과도 완벽하게 어우러진다. 세상 모든 커플의 사랑을 응원하는 티파니 트루 컬렉션의 두 가지 비밀. 그 중심에는 역시 다이아몬드가 있다.

sponsored by Tiffany & Co.

숙련된 장인의 손으로 완성되는 최상의 커팅
티파니 옐로 다이아몬드, 티파니 세팅 링 등 혁신적인 커팅과 광채, 세팅 기술로 다이아몬드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티파니는 4C를 넘어선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4C는 투명도(Clarify), 캐럿(Carat), 색상(Color), 그리고 컷(Cut). 이 중 자연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른 요소들과 달리 커팅은 오직 인간의 손으로 결정되는 요소로, 티파니 장인들은 탁 재품과 구별 짓는 핵심 요소로 이것을 꼽는다. 전문가가 정교하게 커팅한 다이아몬드는 어떤 요소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 자체의 고귀한 모습만으로도 살아 움직이는 듯 빛에 따라 아름다운 광채를 발하기 때문.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온 티파니의 전통에 따라 티파니 다이아몬드는 캐럿 중량보다는 아름다움을 우선시해 커팅되며, 덕분에 티파니 트루는 스톤 하나 하나가 최상의 광채를 발산한다.

다이아몬드의 광채를 살리는 최고의 디자인
티파니 창시자 찰스 루이스 티파니는 '성공의 관건은 훌륭한 디자인이라 말했다. 브랜드의 신념이 된 이 말에 따라 티파니는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하고 도시적인 뉴욕 상류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디자인을 선보여왔다. 이는 유럽 스타일과 확실히 구별되는 차이점으로, 현대적인 디자인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비결이기도 하다. 티파니 트루 다이아몬드 웨딩 링은 한눈에 봐도 미니멀하고 건축적이다. 반지를 착용한 이의 시선에서 볼 때 절제된 T 디테일을 강조한 측면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다이아몬드가 손가락에 근접하도록 세팅했는데, 원석의 광채를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밴드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였다. 바스킷의 섬세한 프롬은 다이아몬드와 매끄럽게 연결되어 다이아몬드의 청초함과 광채를 한층 더 부각한다. 가드 링으로 연출하면 좋을 티파니 T 트루 링은 서로 맞물린 알파벳 'T' 자 형태의 체인이 교차하는 디자인. 날렵한 각이 살아 있는 다이아몬드의 단면을 형상화한 구조적인 실루엣이 독창적이다. 문의 02-6250-8620 **에디터 장라온**



1 플래티넘에 티파니 트루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파니 트루 링. 2 18K 옐로 골드에 핑시 옐로 모다파이드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 3 18K 로즈 골드,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버전의 티파니 T 트루 와이드 링.





스카트를 김민이 레미에드와 오프쇼더 타이드 드레스, 개비엔네의 아이리스 노블 by 세종 레브, 레이스 웨어 컬 102인원대, 피닉스 디어링 레이트 웨이스 세일링, 긴장된 이부노, 팔랑을 코디노를 따라 시종일기 백오2기의 브릴리언트 자다아몬드와 중앙의 페어 것 에메랄드가 눈부신 빛을 발하는 조세반 아크레드 캄페리얼 다이어밍 거터 마장 36에, 로울라이트 거터, 유온드 것 나아이론드를 세팅한 핑크 골드 세팅 보렘 스타트 아이림 1백20인원대 부네.



58개의 다이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저의아쿠아 스윙 링 2백80인원대, 브랜드의 아이크리브 메탈을 사용한 우아한 곡선형 디자인이 돋보이는 옐로 골드 소저의아쿠아 스윙 링 1백20인원대 모두 오제가.

get your logo

잘 고른 티셔츠 한 장으로
완성하는 쿨 스타일링을 위한
맨즈 로고 티셔츠 9.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DREAMERS라는 낭만적 단어와 그래픽적인 V 로고가 조화를 이루는 오버사이즈 티셔츠 59만원 **벨루노**, 문의 02-6905-3610



하우스의 정제성을 담은 아이코닉한 레퍼된 장식과 스티치 디테일로 포인트를 준 카프래티 소재 슬리브리스를 가격 미정 **벨루노**, 문의 02-547-1895



메탈릭하게 처리한 번티지 무드의 사진프린트, 레퍼된 로고, 작은 폰트의 슬로건이 어우러진 클래식 핏 티셔츠 가격 미정 **골든구스 디렉스 브랜드**, 문의 02-519-2937



고유의 '펄테일' 로고 레퍼로 클래식하고 심플한 무드를 강조한 화이트 코튼 티셔츠 44만원대 **단힐**, 문의 00308-12-3725



비주얼 아티스트 조슈아 비데스(Joshua Vides)와 협업해 선보인 2D 카스텔 '칼리포르니아 스카이' 칼렉산의 더블 F 로고 티셔츠 가격 미정 **벨루노**, 문의 02-2056-9023



강각적인 블랙 레퍼된 패치 장식의 카무플라주 프린트 티셔츠 97만5천원 **자향시**, 문의 02-546-2790



화이트 로고로 컬러 대비 효과를 준 라운드 넥 블랙 코튼 티셔츠 21만원대 **누메로 벨루노**, 문의 02-3497-6222



새롭게 해석한 그래픽한 로고 프린트와 흥미로운 컬러 조합이 돋보이는 크루 넥 티셔츠 1백12만원대 **프리다**, 문의 02-3218-5331



브랜드 역사를 응원한 문장(coat of arms) 모티프가 영스러운 협업 허브 슬리브 티셔츠 가격 미정 **닐 바넷**, 문의 02-6905-3696 **에디터 이태미**

for the journey

지도만 봐도 설레는,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담았다.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여성 여행용 시계 7.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오메가 씨마스터 아이쿠아 테라 150m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지름 34mm 스틸 케이스, 18K 세드나 골드 핸들을 달린 물결 패턴 다이얼, 보트 선체를 연상시키는 인텍스를 닮았다. 바드로 떠나는 여행에 제격이다. 6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예거 르콜트르 리베르스 클래식 마담 듀오메이
스스로 세팅되는 시, 분, 초를 나타내는 클래식한 다이얼과 24시간 인디케이터, 세컨드 타임존을 보여 주는 블랙 다이얼이 매력적인 무브먼트로 움직인다. 유럽 어느 한쪽의 아름다움을 가늠하는 여행에 어울릴 법하다. 1천1백90만원, 문의 02-6905-3998

몽블랑 서밋2 다이얼 디자인을 원하는 스타일 로 바피얼, 레퍼, 파르나스 등 모든 활동에 활용 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 케이스는 지름 42mm 로 스틸, 루틴 스틸, 티타늄 소재 중 선택 가능하고 스트랩도 스포츠, 가죽, 라퍼, 나일론 등 11종 류의 옵션이 준비되어 있다. 스틸 케이스에 시터 라일 카프 래터 스트랩 버전은 1백31만원, 문의 1670-4810

까르띠에 산토스 드 까르띠에 손목에 완벽하게 밀착되는 인체 공학적 디자인에 퀵 스위치 시스템을 더해 TPO에 따라 손쉽게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는 시계. 별다른 도구 없이 직접 브러시솔릿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링크 시스템도 더해졌다. 시계 구입 시 제공하는 가죽 스트랩으로 여행 중 간편하게 스타일 변화를 꾀할 수 있다. 7만9000원, 문의 1586-7277

볼가리 다이아드 스퀘어 수심 300m 방수 기능을 갖춘 다이 워치. 스퀘어-옥 크라운을 갖춘 지름 41mm 스틸 케이스와 라퍼 스트랩의 조화가 예뻐 제격이다. 8만6천원, 문의 02-2056-0170

파넬라이 루미노르 듀에 GMT 파워 리저브 45mm 수심 100m 해군과 잠수 특수부대에 장비를 공급하던 파넬라이의 바다에 대한 열정을 참모로 표현한 시계. 지름 43mm의 티타늄 케이스에 새틴 슬루 블루 다이얼을 애용했다. 수심 약 30m까지 방수 가능하다. 1천44만원대, 문의 02-6905-3394

IWC 파워릿 워치 오토매틱 스퀘어 1948년부터 영국 공군을 위해 제작한 마크 11 관측용 시계의 간결한 개가핀 디자인을 그대로 계승했다. 스틸 케이스는 지름이 38mm이며 72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고, 연철 내부 케이스가 무반탄을 자기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 5만95만원, 문의 02-3440-5876 **에디터 장미윤**

scent check

코끝을 자극하는 대담하고 시원한 남자의 향기.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위부터) 조 밀론 **런던 가드니아 앤 오드** 앰플워 가드니아와 재스민 상백, 오렌지 블라섬으로 이루어진 따스한 플로럴 향이 관능적인 오드와 따뜻한 앰버, 부드러운 화이트 머스크와 만나 매혹적인 조합을 이룬다. 100ml 35만원. 문의 02-3440-2750 **톨 포드 뷰티 로즈 포릭 오드 파퓸** 5월의 정미로 불리는 로즈 드 메이와 타카시 로즈, 불가리아 로즈 등 세 가지 희귀한 로즈 품종이 향연을 이루며, 잎새하게 파지는 향신료와 파슬리 어코드가 이국적인 분위기를 풀어내고, 원초적인 머스크 향을 더해 독특한 진함을 남긴다. 50ml 39만원천원. 문의 02-6971-3211 **아틀리에 코롱 세드르 아틀라** 상쾌한 우디 향이 특징으로 아메리칸 시더우드와 이탈리아 레몬의 상큼한 향이 어우러진다. 인디아 피피루스로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100ml 19만2천원. 문의 02-3479-1870 **CK 에브리원** 자연 유래 성분을 79% 함유한 비건 향수로 청량감을 주는 오렌지 오일을 시작으로 청명한 블루 티 어코드와 생동감 넘치는 시더우드로 어우러져 프레시하고 깨끗한 향이 특징. 100ml 7만7천원. 문의 080-850-0708 **구찌 길티 부르 오드 파퓸** 신선한 정미향과 특색 있는 질의 페퍼가 대조를 이루며 비키와 소금의 색다른 느낌을 더하고, 오렌지 블라섬 앰플루드, 네블라, 프렌치 라벤더와 파슬리, 시더우드가 어우러진 풍성한 과능적인 향을 느낄 수 있다. 90ml 15만8천원. 문의 080-850-0708 **에디터 아우이**



perfect hydration

몸이 지칠 때 마실 물부터 찾는 것처럼, 피부가 지칠 때 가장 먼저 공급해줘야 하는 것도 수분이다.
여름철 지친 피부 케어를 위해 탄생한 지방시 하이드라 리소스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은 피부 속 수분 공급에 총력을 다한다.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여름에도 놓칠 수 없는 모이스처라이징

노화에 따른 주름만이 피부 최대 고민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40대에 들어서니 눈 밑 다크서클로 인한 칙칙한 안색과 스트레스에서 오는 원인 모를 트러블, 그리고 계절에 관계없이 피부부터 땅기는 메마름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더 늘었다. 나이가 들수록 색조 제품보다는 궁극적으로 피부 속을 디스려주는 관잖은 스킨케어 하나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게다가 피부 속 에너지를 채운다는 표현이 절실한 뜨거운 여름까지 시작되었다. 우리가 지칠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몸속 수분이다. 피부도 마찬가지인데, 피부 속 수분도와 수분 밸런스는 피부 표면 장벽의 기능에 직접 영향을 준다. 이것이 흔들리면 피부가 예민해져 앞에서 나열한 것까지 곤란한 현상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 특히 강한 자외선과 들쭉날쭉한 습도, 휴가철 무너지는 식습관 등으로 지쳐버린 여름철 피부는 수분을 다스려 지극 없이 케어해주는 것이 좋다. 자연 유래 성분 포몰리로 모든 피부 타입에 사용 가능한 크림이라면 금상첨화. 그런 점에서 지방시의 하이드라 리소스를 추천한다.

© sponsored by GIVENCHY BEAUTY

자연의 힘을 담은 뷰티 모스 콤플렉스

지방시의 하이드라 리소스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은 풍부한 내추럴 성분으로 피부에 가장 중요한 수분을 가득 채워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에 집중한다. 지방시 연구소는 지친 피부에 대응하는 뷰티 모스 콤플렉스를 개발했는데, 이 콤플렉스는 수분 저장 능력이 뛰어난 모스와 수분 증발을 막아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를 진정시키는 에버레스팅 플라워를 함유하고 있다. 자연 유래 성분을 가득 채운 하이드라 리소스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은 친절하게도 두 가지 텍스처로 출시한다. 중·복합성 피부를 위해서는 부드럽고 상쾌한 라이트 텍스처를 담은 하이드라 리소스 벨벳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을, 건성 피부에는 리치한 텍스처로 피부 깊숙이 수분과 영양을 채워주는 느낌을 주는 하이드라 리소스 리치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을 권한다. 사용 후 분리배출이 편리하도록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보틀을 제작했고, 지속 가능한 산림에서 추출한 종이와 바이오 소스 잉크로 박스를 만들어 환경까지 생각한 착한 제품이다. 50ml 8만8천원대. **에디터 장미윤**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평일>와 지방시 뷰티가 함께하는 특별한 쿠폰 이벤트

하이드라 리소스 모이스처라이징 크림의 놀라운 효과를 체험해보세요. 샘플링 기간 동안 아래 매장을 방문하시면 하이드라 리소스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7ml 샘플을 증정합니다.

- ◆ **증정품** 하이드라 리소스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7ml 샘플 ◆ **기간** 2020년 8월 5일(수)~16일(일)
- ◆ **증정 매장**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신촌점, 신세계백화점 타임스퀘어점, 롯데백화점 본점·강남점·수원점 ◆ **문의** 080-801-9500

* 1인 1매 사용, 증정품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모노하 한남

좋은 공간은 기억에 오래 남기 마련. 지난 6월에 문을 연 '모노하 한남'은 절제, 고요, 간결, 조화에 기반해 사물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개념과 오브제 간의 관계성에 따른 미감을 전한다. 도기류를 비롯한 공예품을 선별해 소개하는 이곳은 정돈에 들어서서 그 형태의 길을 따라 돌아가면 매장에 들어서기 전 정원처럼 꾸민 작은 공간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차분히 돌아오며 외부와 단절된 공간을 통해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사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고,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공간을 고집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자상 1층부터 3층에 이르는 이 공간은 식기, 플레이트, 다도 세트 등 상세하고 자연스러운 무드로 채웠다. 2020 크래프트 프라이즈 최종 후보에 오른 김해정 작가와 강석근 작가는 물론이유한 화백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위치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36 문의 02-1577-5307

- 1 울퉁불퉁한 표면이 멋스러운 스물사자주전자 16만5천원 20인.
- 2 자연스러운 곡선의 미학을 전하는 스트레이트볼 기러기미정 강석근 작가 작품.



fine living

미감을 충족시키는 인테리어 쇼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에 새롭게 문을 열거나 달라진 모습으로 이전한 리빙 스푼 6.



빅슬립샵

온라인 위주로 빈티지 조명을 판매하며 두꺼운 미니이층을 확보한 빅슬립샵이 정식 쇼룸을 오픈했다. 오색천안한 조명이 인상적인 공간에 들어서면 빈티지 가구에 놓인 오브제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빈티지, 오리지널, 제뉴인, 쿨, 레어 오브젝트를 기반으로 빅슬립샵을 운영하는 김보람 대표는 빈티지 컬렉터이기도. 김 대표는 "숨의 개념을 넘어 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것들이 모여 형성된 특유의 공기와 무드를 전하고자 쇼룸을 열었다"고 전한다. 독일, 슬로베니아 등 동유럽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수집한 흥미롭고 상세한 빈티지 조명을 중심으로 이와 잘 어울리는 촛대, 잔, 오브제 등 다양한 소품을 소개해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쏠쏠하다.



- 1 아우들라스 실루엣이 인상적인 오렌지 케이스 글라스 바사이드 램프 28만 원대.
- 2 향수를 담을 수 있는 빈티지 보틀 8만 원대.

위치 서울시 서대문구 성신로 379 문의 010-6833-4149



원오디너리맨션

수원 광교에 처음 문을 열고 인사문을 타다 강남구 자곡동으로 거처를 옮겨 새롭게 문을 연 원오디너리맨션. 미드 센트리 모던에 기반한 오리지널 빈티지 가구를 소개해 허먼 밀러, 장 프루베, 피에르 잔느레 등 거장들의 빈티지 가구를 만날 수 있다. 마치 코르부지에 빌라 사보이에와 있는 듯한 이곳은 브랜드가 아닌 디자이너 개별적 취향의 집합으로 '디자이너'를 선보인다는 아이영 대표의 철학과 감각적인 안목이 돋보인다. 약 1백40평대 규모의 쇼룸은 마치 갤러리를 둘러보듯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구를 주의 깊게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예약제로 운영한다. 대로변보다는 한적한 이곳에 자리 잡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공수한 빈티지 가구들이 매일 컨테이너를 통해 들어오며, 가구와 인테리어 양식을 다룬 책도 선별해서 소개해 사적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 7길 24 문의 02-451-0525

- 1 피에르 프레이 패브릭을 입힌 립체어 가격 미정 무드프.
- 2 곡선과 면의 조화가 멋스러운 유니버설 체어 가격 미정 조콜롬보.
- 3 덴마크 출신 건축가 핀 울의 가구 디자인 서적 11만 원.



에이치픽스 도산

크래프트맥심에 기반한 아트 퍼니처를 전개하는 에이치픽스가 개포점, 한남점에 이어 도산사거리에서 세 번째 동점을 열었다. 선과 면, 다소 비규칙적이지만 조화로운 공간의 밸런스를 지향하며, 비우후스식 모더니즘과 컨템퍼러리 디자인에 기반한 유니크한 셀렉션도 선보인다. 독일의 텍타(Tecta)와 단테(Dante), 덴마크 볼리아(Bolia), 스위스 데 세데(De Sede) 등 각국의 오리지널 디자인 철학과 스토리가 탄탄한 브랜드 구성이 돋보인다. 풍성한 제품으로 공간을 채운 이곳은 리빙 분야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개하는 제품과 잘 어울리는 회화 작품 및 설치 매체, 공예 작품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매달 작가와 협업해 기획한 전시를 진행해 언제 방문해도 눈이 즐겁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36 문의 070-4656-0175

- 1 나무 줄기와 모던한 디자인이 조화로운 D42 바니세로프 양치기 3백만 원대.
- 2 수납공간이 있어 활용도가 높은 K88 키우치 테이블 2백만 원대.
- 3 고급 장식이 돋보이는 오브제 걸 등 여러 4Pcs 세트 2백50만 원 운정희 작가 작품.



컨서버토리

런던에서 플라워를 공부한 우정진 대표가 운영하는 곳. 영어로 '우리'를 지은 정원을 의미하는 컨서버토리는 자연과 어울리는 삶을 추구한다. 기존 리빙 편집숍의 분위기와 달리 푸르고 찬란한 자연적인 색감으로 가득한 것이 특징. 영국식 모던 플라워 스타일링을 추구하며 규 기준 화분을 비롯해 국내의 가드닝 관련 브랜드와 작가의 공예품을 전개한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포장재도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한다고, 꽃집을 겸하고 있으며 플라워 및 가드닝 클래스도 계획 중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컨서버토리가 제안하듯 공간에 자연의 싱그러움을 불러들이는 건 어렵지 않다.

위치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23 문의 02-6405-3438

- 1 주문 장식이 인상적인 토본 소재 화분 3만9천원 큐 워밍 식물원.
- 2 은은한 빛을 발하는 유리등 캔 11.9만 원 한우주.



39etc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빈티지의 매력 아닐까. 이촌동에 위치한 39etc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 소량으로 공수한 빈티지 소품을 판매하는 리빙 편집숍이다. 매장에 들어서면 한 쪽 벽에 놓인 독특한 오브제들이 눈에 띈다. 향취와 용도가 재밌는 리빙 소품을 주로 소개하며 모던, 엔틱, 오리지널 등 어떤 분위기의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는 숨은 보석 같은 아이템을 갖췄다. 1930년대 벨에포크 시대에 사용됐을 법한 꽃병모양 모양의 재료를 비롯해 빈티지 잔과 화병, 보석함, 캔들 홀더 등이 대표적. 최근 웰니스족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징, 팔로산도 스틱류의 인센스를 판매한다는 점에서 인상적 이기도 하다. 리빙에 한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시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열 예정이다. 에디터 이주인

위치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18길 21-47 문의 010-8810-0921



- 1 차분한 색감이 돋보이는 티포 7만 원, 진로 서서 세트 30만 원.
- 2 울타리로 포인팅을 준 코끼리 모양 스토크 컵 13만 원.

editor's Pick

8월, 지치고 약해진 피부 회복에 전념해야 할 시간.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2020 F/W 메이크업 컬렉션 여성이 지니고 있는 순수함과 성숙함, 그 이중성을 강조하는 샤넬 2020 F/W 메이크업 컬렉션. 이번 컬렉션에서 여성과 가장 밀접한 색상인 분홍색으로 어린 소녀의 순수함과 성숙한 여인의 모습까지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 단순히 예쁜 색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더욱 대담하고 파격적이며 관능적인 느낌으로 표현했다. 오는 8월 15일 출시한다. 문의 080-332-2700

구찌 루즈 아래반트 매트 리마이트 에디션 #307 루이지 오렌지 어린 시절 영아의 화장대에서 본 것 같은 클래식한 케이크가 인상적인 구찌의 립스틱, 고유의 감성을 담은 유근틴 세이프, 뛰어난 재질력으로 문질 때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리마이트 에디션은 화려한 꽃에서 영감을 얻었다. 매트한 피마사틴 빈 타잔엔 컬러가 매력적. 3.5g 428천원. 문의 080-850-0708. by 에디터 이준희

파리엔 주얼 볼륨 샵루 루비, 자수정, 잔주, 호박, 투르말린, 코랄, 산호 등 총 일곱 가지 주얼 성분을 두피에 공급해 손상된 모발의 큐티클 재생을 돕고 윤기와 볼륨을 부여한다. 매일 아침 샤워 시 사용 중인데, 속 차지는 샴푸리에도 사용 가능. 샴푸 볼륨감이 달라지는 것이 느껴진다. 500ml 3만2천원. 문의 070-4251-6058. by 에디터 장미윤

클레옌 보메 팀 라이너 펜슬 마스크 적용에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붉은 입술. 활짝 핀 붉은 장미에서 영감을 얻은 레전드 레드 컬러를 담았다. 또렷하고 선명한 입술 선 연출에 이만한 제품이 없을 듯. 패들 캔투어링 포뮬러로 미끄러져도 부드럽게 입술에 밀리고, 펜슬 반대쪽 팁에 장착된 얇은 브러시를 활용하면 립스틱 색상 에 맞춰 자연스럽게 마무리할 수 있다. 0.25g 6만3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이준희

샤넬 뉴타입 브라이트 스킨 기법과 워터리한 제형으로 냉장 보관한 뒤 화장실에 들복 묻혀 부드럽게 닦아주면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한다. 피부 탄력 증진에 효과적인 영자와 안색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석류, 그리고 피부에 광채를 부여하는 다이아몬드 성분을 함유했다. 꾸준히 사용했다니 피부가 한결 밝아진 듯한 느낌. 150ml 1만1천원.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이준희

로라 메르시에 케리어 스틱 아이 컬러 #세아너 입고 빠르게 그윽한 눈매를 완성할 수 있는 아이섀도 스틱, 크림처럼 부드러운 텍스처, 선명한 발색력, 고급스러운 컬러감까지 모두 갖췄다. 미세한 펄 입자를 더한 번트 오렌지 계열의 세아너 컬러는 여름밤 화려한 혹은 물론, 다이나믹한 가을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1.64g 4만2천원. 문의 02-564-0055. by 에디터 이준희

샤넬리아 탱크드림 안티 아주 스트레스, 식습관, 표정 등으로 진행되는 노화는 유전적인 것보다 얼굴에 더 잘 드러나고, 이 때문에 휴식적인 요인으로 생긴 주름을 완화하고, 탄력과 광채를 끌어올려주며 궁극적으로 피부를 견고하고 촉촉하게 가꿔주는 토날 안티에이지 솔루션을 제공한다. 아침과 저녁 사용 중인데, 미세한 주름이 부드럽워지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피로의 흔적이 감소되는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50ml 50만원. 문의 080-549-0216. by 에디터 장미윤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스크린라이드 얇아-리파리너 클림엑스 피부 본연의 힘을 기르는 데 갈색성 색소침착을 막아주는 효능을 발휘하는 아이젤이 있듯, 기존 제품 대비 2배 강력해 리파리너 기능이 피부에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꾸준히 사용하면 입술이, 피부가 한층 생기 있고 건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강화유리로 제작한 보틀은 재활용 가능하다. 50ml 15만1천원. 문의 02-6971-3212. by 에디터 이준희

다들 5 콜로로 꾸뛰르 아이세노우 펠릭스 #539 그랑 빌 달 로제 뒤 웨어 컬렉션에서 영감을 얻은 매트, 세틴, 펄, 메탈릭, 글러디, 다섯 가지 파우더가 구성된 로제 뒤 웨어 제품, 크리미한 텍스처로 부드럽게 발리는데, 쉽게 붙어있을 수 있어 덧칠하거나 무감각하게 막스 매치할 수 있다. 스프레이 타입과 브러시 타입 애플리케이션을 갖춰 재주 없는 손으로도 섬세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다. 7g 8만5천원. 문의 080-342-9500. by 에디터 이준희

통 포드 클레이 서머 펄리시 입자가 미세한 금이 촘촘히 박힌 투명한 질감으로, 입술에 바른면 신기하게도 은은한 핑크빛이 난다. 열은 컬러에 촉감까지 촉촉해 컬러 립밤 대용으로 탁월하다. 당분간 에디터의 가방 속에서 함께할 예정이다. 3g 6만4천원. 문의 02-6971-3211. by 에디터 장미윤

입생로망 뷰티 엔크르 드 루 스킨 #20 촉촉하게 발리지만 번들거림은 없어야 하고, 오히려 가벼운 커버를 원하는 에디터를 충족시킨 아이젤, 재스민 꽃잎 추출물 덕분에 디크림 없이 편안한 메이크업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 가죽 세븐은 패턴을 적용한 감각적인 쿼터트 패턴과 휘황 자적. 14g 8만9천원. 문의 080-835-0089. by 에디터 이준희

랑콤 어드밴스드 제-피피 아이 & 래쉬 세럼 아이케어 제품에서 성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차별화된 애플리케이션이다. 랑콤에서 드물게 펄이 들어간 애플리케이션은 360도 회전하는 디자인으로, 이를 사용해 눈가 눈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제-피피 프라바이오틱스 추출물을 포함한 유효 성분들이 고루 흡수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20ml 10만1천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이준희

올세인트 클로라 모티스 남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캔디스 향수, 스킨오일의 플로럴 향과 우레탄을 더한 앰버우드와 원상해 티핑이 있다. 한여름에 사용해도 좋은 세련된 향. 브랜드의 첫 향수 컬렉션으로 아시아 지역에선 한국에만 독점 론칭했다. 100ml 9만5천원. 문의 070-4757-7604. by 에디터 장미윤



JEWEL&WATCH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321 전 세계 시계 수집가와 애호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스피드마스터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에 업그레이드된 2세대 칼라버 321을 적용했다. 1965년 미국이 우주를 처음 유영했을 당시 비행사가 착용했던 3세대 스피드마스터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모델로, 블랙 다이얼에는 문워치 핸즈와 빈티지 오메가 로고가 장식되어 있다. 문의 02-511-5797

에르메스 워치 슬림 데르메스 GMT 슬림 데르메스 GMT는 간결함과 균형 잡힌 디자인으로 시계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푸른 밤하늘 같은 짙은 파란색 다이얼과 심플한 인덱스, 가느다란 선으로 표현한 케이스와 직각 형태 라그는 매우 현대적이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의 'home time'과 현재 머물고 있는 여행지 'local time'의 낮과 밤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2개의 인디케이터를 장착했다. 문의 02-542-6622

타피니 타피니 트루 다이아몬드 웨딩 링 광채와 영감을 극대화한 다이아몬드 커팅이 특징. 아주 작은 요소로도 건축적인 감각을 엿볼 수 있는 매력적인 웨딩 링이다. 특히 브러드 모티프인 알파벳 T 디테일을 강조한 측면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플래티넘 소재 밴드에 타피니 트루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과 18K 골드 밴드에 핑스 옐로 모파이드 브루이언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버전으로 선보인다. 문의 02-6250-8620



랜드로버 올 뉴 디펜더, 국내 사전 계약 열을 만에 3백 대 돌파 1948년 첫 출시 이후 전 세계에서 28년 만에 판매량 1백만 대를 돌파한 밀리언 셀러 모델인 올 뉴 디펜더가 단 10일 만에 사전 계약 3백 대를 돌파하며 국내 SUV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켰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출시한 올 뉴 디펜더는 명성에 걸맞은 오프로드 주행 성능 및 안정적인 온로드 성능, 최첨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퍼비 프로를 탑재했다. 사전 계약 및 상담은 전국 랜드로버 공식 전시장에서 가능하다. 문의 02-539-7777

LIFESTYLE

SHOWROOM

샤넬 2020 F/W 메이크업 컬렉션 여성이 지니고 있는 순수함과 성숙함, 그 이중성을 강조하는 샤넬 2020 F/W 메이크업 컬렉션. 이번 컬렉션에서 여성과 가장 밀접한 색상인 분홍색으로 어린 소녀의 순수함과 성숙한 여인의 모습까지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 단순히 예쁜 색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더욱 대담하고 파격적이며 관능적인 느낌으로 표현했다. 오는 8월 15일 출시한다. 문의 080-332-2700



연약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드라마와 파트너십' 케겔 스타 부부와 유명 인사의 산후조리원을 책임지는 프리미엄 산후조리원 '드라마' 글로벌과 연약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연약 마더후드 소르비올 인텐스 리 카버링 프로그램 앰플을 각실 나 에어-티로 제공해 출산 후 3주간 집중 케어로 임신과 출산으로 극심한 변화를 겪은 피부를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 문의 1644-4490

자방시 명 꾸뛰르 쉬머 파우더 나 자신을 위한 휴식과 즐거움의 시간을 위해 탄생한 2020 썬머 헤이즈 컬렉션. 그중 명 꾸뛰르 쉬머 파우더는 탈크가 없는 하이브리드 파우더 제품으로, 어느 각도에서도 햇빛을 머금듯 자연스럽고 빛나는 피부를 연출해준다. 자방시 4G 로고가 새겨진 핑크와 골드, 2가지 세이드로 구성했다. 문의 02-772-3226

실론 여름 홀감스 키트 플라시앤고 프르는 핸드형으로 그림감이 좋은 가정용 제품이다. 피부에 밀착하면 자동으로 레이저가 나오는 자동 조사시스템과 제



BEAUTY FASHION



스마트홈 'STAY COOL' 서머 기프트 프로모션 40만원 이상 스마트홈 여행용 캐리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시 사용하기 좋은 프리미엄 쿨러 백 2종 세트를 선착순 증정한다. 3겹 보강재와 방수 자피가 냉기 손실을 차단해주는 쿨러 백으로, 이프르 모션은 오프라인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에서 모두 진행한다. 재고 소진 시 종료될 수 있으며 별도 구매는 불가하다. 문의 02-551-0667

토스 남성 서머 캡슐 컬렉션 로퍼 디자인 프리팅 기계를 사용해 여유 있고 편안한 형태로 사랑하는 코미노가 가족에 완전히 맞아떨어지도록 했다. 텅 부분 왼쪽에 T 로고를 멋스럽게 스탬프로 찍어낸 것도 포인트. 테두리는 포인 가죽으로 장식해 더욱 고급스럽다. 카프스카와 스웨이드 가죽 소재, 27키로 만능볼 수 있다. 문의 023438-6008

구찌 실비 1961 솔더백 2020 프리즘 컬렉션에서 선보인 실비 1961 솔더백 미니 사이즈 버전은 24K 골드 파니시 체인과 버클 디테일, 길이 조절 가능한 솔더 스템과 내장된 수납공간으로 우아함과 실용성을 두루 갖춘 제품이다. 블랙·브라운·그린·체리·레드·화이트 색상으로 선보이며, 전 세계 중 한국에서



가방 먼저 론칭해 의미가 깊다. 문의 02-3452-1921

몽클레르 리브 노 트레이스 스니커즈 하이탑 스타일 리브 노 트레이스 스니커즈는 거친 산악 지대에서 받은 영감을 도시의 삶에 녹여내는 것을 콘셉트로 한다. 투박한 디자인에 바다를 담은 파란색 솔을 더해 남녀 모두 신을 수 있는 색상 조합을 선보인다. 뒷부분을 연장해 덧댄 멀티컬러 니트 양말이 발목을 감싸주어 활동하기 편하고, 옆부분엔 브랜드를 대표하는 알파벳 M을 선명하게 수놓았다. 트리를 블랙, 레모네이드 핑크, 총 3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514-0900



몽클레르 비아 델라 스피가 SSF 팝업 숍 오픈 이벤트를 테마로 한 2020 S/S 시즌 액세서리 전 라인업을 온라인 팝업 숍 SS에서 8월 31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자체 선공작인 인클로저 끈 캔버스 백에 이어 이번 시즌 새롭게 탄생한 비포리온, 벨루모, 에스태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카프 스킨 백까지 다양하게 준비했다. 1백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몽클레르 미니 트 알리를 한정 수량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문의 02-3267-8424

모나 라잔 백 브랜드 팬자 후원자이던 프랑스 여배우 기브라엘 라잔을 오마주해 만든 기브라,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곡선과 볼륨감이 특징이다. 특히 등쪽의 집금자치를 통해 브랜드 역사와 영감을 고스란히 담아낸 라잔 백에 어크로스 스트랩을 더해 색다른 컬러 조합까지 즐길 수 있도록 했다. 8월 말까지 마케를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니 놓치지 마라. 문의 02-2254-4150





MASTER CHRONOMETER



Speedmaster
MOONWATCH

MASTER CHRONOMETER CERTIFIED

Behind the elegance of every Master Chronometer timepiece is the highest level of testing: 8 tests over 10 days, to ensure superior precision and anti-magnetic resistance.


OMEGA

| 직영점 | 청담부티크 02-511-5797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02-3213-2255 신세계 본점 02-310-1270 강남점 02-3479-6025 타임스퀘어점 02-2639-1910 대구점 053-661-1811 현대 목동점 02-2163-1283 무역센터점 02-3467-8632 판교점 031-5170-1111 대구점 053-245-2249 갤러리아 광교점 031-5174-7178